

장흥군, 물축제 앞둔 탐진강 “더 깨끗하게”

문화관광과 직원 39여명 탐진강 일원 쓰레기 제거·청소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

장흥군은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앞두고 22일 탐진강 환경정화에 나섰다.

이날 장흥군 문화관광과 직원 39여명은 축제장으로 사용되는 탐진강 일원의 부유물과 쓰레기, 수초를 제거하고 수변 관광 시설물을 청소했다.

청소에 참여한 공무원 들은 3년만에 개최되는 물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축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구슬땀을 흘렸다.

올해 물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장흥읍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란 주제로

펼쳐진다.

장흥군은 축제기간인 9일동안 탐진강을 중심으로 시원하고 아름다운 장흥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탐진강 수중에 설치된 터널분수가 더욱 시원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성공적인 물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민선 8기 공직자 대상 의식개혁 교육 개최

진도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내 삶과 진도군이 확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선 8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소양·진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1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렸다.

공직자 의식개혁 전문 강사인 조은세(목포국학원장), 최진일(광주국학원장)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과 홍익인간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아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가 주는 효과가 지대한 만큼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과 청렴한 공직 생활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공무원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 대학 개강...농가소득 향상 11월까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유통 및 마케팅 트렌드 학습

강진군은 지난 20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4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가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 트렌드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마케팅 유통 관련 신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 대학은 올 11월까지 농특산물 관련 유통 및 마케팅의 이해, 최신 유통 트렌드 등 이론과 선진 농업기술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선진 농장 현장 학습을 포함해 총 6회차 교육으로 진행된다.

농특산물을 단순히 농협 로컬푸드, 학교 급식, 시장 등에 공급하는 전통적 유통방식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 홍보, 6차산업화, 온라인 직거래 등의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다.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셔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농가소득 향상을 연소득 5천만 원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 농어업의 미래 발전 동력이 되는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대학을 개설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소비자이자 홍보대사로 만들기 위해 수강생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마케팅 전략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 시작

군민과 함께하는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로 해남형 ESG 실현

해남군이 민선8기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로 군민이 함께하는 으뜸해남 실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8기 ‘합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군정목표로 ‘해남형 ESG’를 군정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는 군민들과 함께하는 실천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군정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한 해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해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 분야를 시급히 추진한다.

쓰레기 없는 해남, 일회용품 없는 해남, 지속가능한 청정해남을 구현하기 위한 탄소 제로·쓰레기 제로와 함께 사람중심 해남, 안전한 마을, 나눔확산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의 청결·청정한 해남 만들기가 본격 추진된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비롯해 도로변, 해양, 영농폐기물, 하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관리와 함께 노후간판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을 연중 추진하게 된다.

관련하여 지난 15일에는 군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 시가지 골목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한 ‘다같이 줍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휴가 기간에 도로로면 청소차량을 운행해 주요 도로 및 해남읍 시가지 노면에 쌓인 토사 및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다. 8월말까지 진공흡입차량이 운행하며 주요도로 및 시가지 노면을 청소하게 된다. 관광지 등에 대한 공중화장실 수시점검도 실시해 청결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민들도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와함께 군은 사회(Social)분야로 어르신,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안전 인프라, 재난과 화재, 범죄, 교통 등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제로화도 추진한다.

4년연속 전남유일 종합청렴도 2등급의 성과를 이어 청렴한 해남만들기를 위한 과제도 꾸준히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과 친절도 향상, 군민참여와 소통 확대 등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ESG 윤리경영 방침에 맞춰 깨끗한 해남 만들기를 각 분야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전남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 개최

완도군은 지난 20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조직위원회는 104명의 사회 각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정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위원들을 대표해 조직위원장(완도군수 신우철)로부터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체전 준비 상황 보고, 조직위 및 집행위 운영 규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였으며, 민경신 위원과 장혜숙 위원이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신우철 조직위원장은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남장애인체전인 만큼 무엇보다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치르고,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감동 체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